

# “직불금지, 중소농민 포용하는 개편 돼야”

### 文대통령 농식품부 업무보고서 “사람중심 농업 전환… 미래산업으로 도약”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식형 직불금지 개편과 관련해 “직불금제는 작물 종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농민까지 포용하는 쪽으로 제도 개편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2019년 도에는 공식형 직불금제 개편과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등 매우 중요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농업인과 단체, 전문가 등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며 “제대로 된다면 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획기적인 농정 개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논·밭 등 재배 작물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향

의 직불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쌀 농가의 작목 전환을 유도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지급액을 우대하는 역진 체계를 통해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농식품부는 각종 현안에 대응하느라 노고가 아주 많았다”며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 조류독감(AI) 등 가축질병, 폭염 한파에 따른 긴급 수급 및 재해 복구 대책 등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부처 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올해는 계란의 안정성에 대한 염려가 거의 없어졌고, AI 발생 건수도 작년 대비 94%나 감소했다”며 “농식품부가 크게 자랑할 만한 그런 성과다. 특별히 치하

하면서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다.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고는 안전하지 못한 먹거리, 토양을 비롯한 환경오염 등 생명산업으로서 농업 본연의 가치를 상당부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과정에서 보여준 부처 간 혼신, 친환경 인증제도의 허술한 관리 등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불안을 줬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들이다. 농업의 패러다임을 사람중심 농업으로 전환해 농업 본연의 가치, 생명의 가치, 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 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농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농업인이 혁신 주체가 되고 농업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일지리의 보고가 되도록 해야겠다”며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청년들의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과 재배 기술을 결합하면 농업은 가장 혁신적인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빅데이터와 드론을 활용한 수급 예측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스마트팜, 스마트 축사로 친환경적이면서도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 설 명절 선물세트 지금 예약하세요

### 농협하나로마트, 행사카드 결제시 최대 30% 즉시할인

농협은 설 명절을 맞아 내년 1월 20일까지 35일 간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대대적인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할인판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농민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프리미엄 과일을 비롯해 고품질 한우, 굴비, 특산물 등 청탁금지법 한도를 반영한 우리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와 실속 있는 인기 가공식품·생활용품 선물세트 등 총 150여품목을 판매, 행사카드(NH, NHBC, KB국민)로 결제 시 현장에서 최대 3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내년 1월 6일까지 행사카드(NH, NHBC, KB국민)로

30여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구매금액의 10%까지 농촌사랑상품권을 증정(최대 200만원)하는 등 미리 준비할수록 더욱 풍성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설 선물세트 중 눈에 띄는 것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하고 제조한 건강·전통식품으로 구성된 ‘농업인 생산기업 선물세트’이다.

또한, 지역별 품평회를 거쳐 엄선했으며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고객에게 우수상품을 할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도농상생의 착한 소비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태 기자

## ‘공공 혁신조달’ 내년부터 본격 추진… 혁신제품 구매 테스트베드 도입

### 조달청, 공공구매력 활용… ‘경쟁적 대화 방식’ 발주제도도 첫 선

조달청이 2019년부터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한 혁신제품 창출과 혁신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 혁신조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8일 조달청은 국가예산으로 혁신제품 생산을 유도하고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 혁신조달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공 혁신조달사업은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물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한 뒤 이를 통해 개발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정책이다.

우선 조달청은 내년에 ‘혁신제품 시범구매(공공 테스트베드)’ 사업에 착수, 총 사업비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우수 연구개발(R&D) 제품 등 혁신제품을 구매한 뒤 공공기관이 테스트기관으로 참여해 상용화를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내년 1월 사업 공고를 낸 뒤 전문 기술평가 및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제품 선정

위원회’를 통해 드론, 미래자동차 등 정부혁신 8대 선도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4개 제품을 선정, 시범운영에 나선다.

혁신제품을 윈스톱으로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된다.

조달청은 공공 수요가 예상되는 혁신제품을 윈스톱(통합)으로 검색하고 바로 구매가 가능한 ‘혁신제품 조달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하고 모두 2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대상으로 운영 중인 벤처나사를 내년 3월 중으로 혁신제품 조달플랫폼으로 재구축하는 용역을 발주하고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곳은 혁신기술, 제품의 수요 및 공급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오픈-마켓(열린시장)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가 연구개발(R&D) 제품에 대한 판로지원도 확대돼 조달청은 연구개발(R&D) 주관 기관과 공공수요가 있

는 과제들을 공동 발굴하고 개발 성공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수익계약이 가능케 하는 등 판로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 2016년부터 과기정통부와 ‘드론’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해 올해 ‘군사용 드론’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한 데 이어 내년에는 ▲기상용 ▲실종자 수색용 ▲방송 중계용 ▲대기 오염물질 측정용 드론 등 8개 제품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이어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 및 중소벤처부 등 협력 부처의 추천을 받아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에 상용화되지 않은 혁신제품을 발주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신개념의 ‘경쟁적 대화 방식’ 발주제도도 첫 선을 보인다.

경쟁적 대화방식은 발주기관이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과 2~6개월간 개별적 대화 절차를 통해 사업조건에 부합하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최종 제안서를 제출받아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뉴시스

이 방식은 입찰참여 업체들과 기술적 대화(dialogue)를 통해 발주기관의 요구에 맞는 대안을 찾고 이어 세부 규격을 확정,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발주시스템이다. 영국 등 유럽에서는 2006년 도입됐고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달청은 이날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도입 근거를 마련, 내년 4월부터 시범 시행할 예정이며 점차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공공 혁신조달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조달청은 내년 3월 중 전담부서인 ‘혁신조달과’를 신설하고 조직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혁신조달 TF’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조달청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연간 123조원에 이르는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해 혁신제품과 기술창출을 유도할 것”이라며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성과물들이 공공시장을 통해 판매, 기업이 성장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NH농협은행, 2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년 소비자 중심경영(CCM) 재인증을 받아 2016년은 행권 최초 신규 이후 2년 연속 인증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CCM 인증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

든 활동을 얼마나 소비자관점에서 생각하고 제도를 개선하는지를 평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제도이다.

농협은행은 ‘사람받는 일등 민족은행’의 비전을 가지고 CCM을 체계화

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연평균 1000여억원 이상을 사회공헌활동에 지출하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은행권 사회공헌 1위를 달성했다. 아울러, 민원 예방, 소비자불만 해소 노력을 통해 3년 연속 업계 최저수준의 민원발생 비율

을 유지하며 대표포장 점유비 역시 주요은행 최저비율을 4년 연속 유지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2회 연속 CCM(소비자 중심 경영)인증 획득으로 2020년 12월까지 향후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되는 개별 소비자 피해 사건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소비자 관계법령의 시장조치 제재수준도 경감된다. /김영태 기자



전주우체국이 18일 ‘우체국 종합금융센터’ 전북청 1호점 개소식을 가졌다.

## ‘우체국 종합금융센터’ 전북청 1호점 개소식 가져

전주우체국(국장 박찬례)은 18일 금요일 다변화 등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금·펀드·보험가입 등 상담위주 창구 운영을 위해 김성철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정청 금융관계자, 고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체국 종합금융센터’ 전북청 1호점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주우체국 1층 영업과에 마련된 종합금융센터는 기존 우체국 금융창구와는 달리 마케팅 상담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고객들을 찾아가는 마케팅 활동과 고객중심의 자산관리 등 한 차원 더 높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찬례 전주우체국장은 “이번 전주우체국 종합금융센터 개소를 계기로 우체국금융은 국민생활과 융합된 서비스 제공과 고객가치 증대를 목표로 서비스향상을 통해 국민금융, 착한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